

[속보] 청와대 향해 네티즌, 시민들 진격투쟁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5.24 18:59

[사진1]

[4신/08:10/5월25일]촛불대오 광화문 밤샘농성 벌이며 경찰과 격렬공방 네티즌, 시민 수십명 강제 폭력연행돼, 부상자도 속출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경찰이 차단하자 촛불대오는 전날 저녁 11시경 종로쪽 왕복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밤샘 공방을 벌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이명박 하야' 등 구호를 외치며 밤샘 거리농성에 들어간 대오를 향해 돌아온 건 결국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침탈과 폭력연행이었다.

무려 14시간동안 촛불대오는 종로통에서 반이명박 결사투쟁을 벌이다 이날 아침 6시경 광화문우체국 도보 쪽으로 밀려났다.

앞서 경찰은 비무장 촛불대오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위협을 가했고 방패를 앞세워 밀고 들어올 때마다 대오는 경찰과 밀착한 채 현장 사수에 안간힘을 기울이며 "폭력경찰 물러나라, 이명박은 하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전했다.

차로 안쪽 대오가 경찰폭력으로 밀려날 때마다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게 독재 아니냐, 폭력경찰 물러나라, 평화시위 보장하라"는 구호를 씩씩이 외쳤다. 경찰과의 공방은 씩씩이 이어졌다.

한때 병력과 차량 일부를 철수했던 경찰이 다시 노숙농성 현장을 치고 들어온 건 새벽 4시20분경이었고, 이후부터 경찰의 폭력침탈과 강제연행이 시작됐다.

네티즌, 시민들은 경찰의 현장 폭력만행을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알리기도 했고, 그 소식을 접한 이들이 새벽 녃에 심야 택시를 타고 농성 현장으로 모여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네티즌, 시민들이 팔을 걸거나 스크럼을 짠 채 현장사수 투쟁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대오는 새벽 5시부터 경찰이 강제진압과 폭력연행을 시작한지 1시간여 만에 광화문우체국쪽 도보까지 밀려났고, 경찰은 대오가 차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벽을 세웠고, 모든 통로에 병력을 집중배치했다.

경찰의 폭력침탈 과정에서 네티즌, 시민 수십여 명이 폭력연행돼 분산수용됐다. 공방 과정에서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거나 집단연행을 시도했고 일부 네티즌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시각 현재, 밤샘농성 투쟁을 벌인 대오는 광화문우체국 앞쪽에 집결해 '이명박 물러나라, 협상무효 고시철회'를 외치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청계천 무천교 쪽을 중심으로 사방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상태다.

[3신/22:55] 촛불대오, 종로통에서 청와대진격 공방 촛불대오 세종로네거리->종로통 집결, '독재타도, 이명박탄핵, 한미쇠고기협상 무효' 외쳐

저녁 9시20분경부터 시작된 네티즌,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은 경찰의 강제진압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녁 10시45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촛불군중은 9시를 넘겨 자발적으로 청와대 평화행진을 시작했고, 한때 세종로네거리 차량 흐름이 완전 차단됐었다. 경찰은 청와대로 통하는 세종로네거리 쪽을 차벽으로 틀어막고 병력을 동원해 방패를 앞세워 촛불대오를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촛불대오는 강하게 항의를 벌이며 쓰레기 소를 국민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나며 집단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10시50분 현재 촛불대오는 세종로네거리가 막히자 방향을 선회해 교보문고를 거쳐 종로구청 쪽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미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한 상태였고 성난 군중들은 종로통 4차선 왕복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일부 대오가 다시 “독재타도, 이명박탄핵”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행진에 돌입했다. 경찰병력은 경고방송을 통해 해산을 종용하자 대오는 일제히 야유를 퍼부으며 비켜라 구호를 외치고 이명박 데리고 나오라며 소리친다.

아이를 들쳐업은 주부들, 꼬마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 학생들, 넥타이를 맨 직장인 등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해 행진투쟁을 벌이고 있다. 뒤로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저녁 10시 53분 현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촛불대오는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다. 자발적으로 뭉친 반이명박 투쟁이라는 거대한 외침은 5월24일 항쟁으로 바뀐 것 같다.

억눌렀던 한들이 일시에 터져나와 서울 종로통에서 뻗히 바라보이는 청와대를 향해 밀려 들어간다. 10시56분 교보문고 앞에서 큰 함성이 터져나온다. 촛불대오 일부가 경찰과 충돌했다.

5.24 항쟁이 이어지고 있다.

[2신/21:40] 네티즌, 시민들 청와대진격 투쟁 중
“촛불이아니라 햇불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겠다!”

저녁 8시45분 현재, 서울 청계광장에 약 5만여 명의 촛불인파가 몰려있다.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 움직임에 대한 열띤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과 소통을 말하지만 과연 그에게 국민이란 무엇이며 분노에 찬 함성을 쏟아내고 있다. 한 주부는 “이명박의 대국민담화문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부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반광우병 현수막을 집에 걸었고, 주부들이 힘을 모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보관된 냉동창고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주부들의 반광우병 투쟁상을 설명했다.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4.15공교육포기선언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 등을 성토했으며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우열반으로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는 정부교육정책을 반대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고 창의로운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0교사와 보충수업 등도 반대한다”고 말해 환영을 받았다.

정 수석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고 미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미친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전교조 활동을 소개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못 살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가장 앞장서서(학생들을)보호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교육, 우리 소중한 국민과 학생들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들도 촛불집회 현장을 흥미롭게 지켜본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요크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데이비드 맥웰리(David McWally, 54) 씨는 “한국 국민들이 벌이는 촛불시위 현장을 보는 심정이 매우 행복하다”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권력에 항거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영광이고 캐나다에 돌아가면 캐나다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투쟁을 자세히 말하겠다”는 말로 기대를 밝혔다.

[표시작]현장인터뷰/데이비드 맥웰리(David McWally, 54)/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과 교수=학술회의차 방한했다. 촛불집회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다. 지금 심정은 매우 행복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권력에 항거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영광이다. 한국 국민들은 한미FTA가 미국과 한국기업만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 미국 현지 소 검사는 오직 대기업만을 위한 검사일뿐이다. 국민을 위한 검사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 건강엔 관심이 없고 목적업계 이윤 확장만 보호한다. 기존 미디어들은 대기업 이윤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건전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올바른)정보를 캐내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FTA를 멈출 수 있는 힘을 인식하고 이 운동을 더 중진시키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FTA 저지를 자신있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현장통역=김원일 교수(59)/미국 캘리포니아 라시에라 대학 종교학과)[표끝]

우석균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한미쇠고기 협정문

자체가 미국 쇠고기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이걸 대국민사기에 불과하다"고 이명박 정권을 성토했다.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서울 용산 소재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인터넷에 촛불집회 참가 학생들을 탄압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으며 오늘까지 촛불집회에 8번 참석했다"며 "지금 학생들은 대통령을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우리를 더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학교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대체 한국 대통령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부모님께서 촛불집회에 나가는 저를 보고 자상스럽다고 말 하신다"고 가족들 반응을 소개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야 하며, 한미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강하게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 소리를 외면하고 수입을 고시하면 어른들과 함께 더 큰 행동으로 나설 것이며 일부가 우리를 보고 냄비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시작]현장인터뷰/이00 고1 학생(서울 용산 소재 00고등학교)=인터넷에 학생탄압 말라는 글을 올렸다. 오늘까지 촛불집회에 8번째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더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독도까지 내주려 하고 있다. 미국산 미친 소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다. 도대체 한국 대통령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부모님께서 촛불집회에 나가는 저를 보고 자상스럽다고 하신다. 저도 애국자가 된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야 한다. 한미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강하게 재협상해야 한다. 만일 우리 소리를 외면하고 수입을 고시하면 어른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냄비현상을 말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표끝]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영국 여성 초이스 사이먼(Chic Simons, 25세) 씨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역동적인데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개월만에 그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국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과 싸우면서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경이롭다"고 말했다.

초이스 씨는 이어 "한국 국민들이 만든 인터넷 정치와 그 영향이 막강하다는 사실이 기적같다"며 "상대적으로 영국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정치에 대해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며 한국의 인터넷 정치세대들의 역동성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반광우병 삼보일배' 투쟁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5만여 촛불참가자들은 일제히 강기갑을 연호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즉각 협상 진실 공개를 요구했고 "민심이 청계광장에 밝혀진 촛불들로 모여있고 이런 민심을 청와대에 알리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섰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큰 함성과 박수를 강 의원을 격려했다.

이석행 민주노동당 위원장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었지만 저희가 앞에서면 조중동 등 여러 보수언론이 촛불을 음해할 것 같아 걱정스러워 그러지 못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오늘 여의도에서 민주노동당 조합원들이 힘차게 결의했고,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이 고시를 반대하고 재협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고시한다면 전국 창고를 우리 조합원들이 막고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참가자들 모두 환호를 연발했다.

이 위원장은 촛불참가자들에게 민주노동당과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고 "25일 (오전)11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우리 절대로 광우병을 먹을 수 없기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확실하게 막아보겠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참가자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은 터질듯한 격정으로 가득찼다. 결국 터지고 말았다. 저녁 9시 21분 네티즌, 시민 등 촛불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에 나섰고 그 사실이 촛불참가자들에게 알려졌다. "협상무효"를 외치는 촛불군중들이 청와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9시38분 촛불이 청와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찰은 차벽을 쌓고 청와대행진 차단에 나섰다. 촛불참가자들이 교보문고 빌딩을 거쳐 문화관광부 쪽 보도로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이를 막고 있다. 총돌이 빚어지고 있다. 촛불군중들은 물러나지 않고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고시철회 등을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1신/18:50] 서울 청계광장 17회 촛불문화제에 수만 인파 몰려

5월 24일 주말을 맞은 서울 청계광장, 이곳에서는 지난 2일 첫 촛불집회 이후 17번째 촛불대장정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00여 주요 거점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린다.

10대 청소년들이 '반이명박' 촛불집회에 대규모로 참가하자 정부와 교과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 자체를 강압해왔다. 교육청과 학교는 장학사와 교사들을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해 학생 참여를 막거나, 참가한 학생들을 색출해 진학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부담을 주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 경찰까지 나서서 촛불집회 참가 주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며 수업 중이던 학생을 끌고나와 조사를 벌이는 등 공권력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청소년(촛불)집회참여에 대해 정당한 국민기본권 행사라는 요지의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가 다시 극대화될 여지가 커져 '반이명박 촛불집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여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지난 4월 방미해 한미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이명박 정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상상을 넘어섰다.

등 돌린 민심과 촛불이 그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을 85%대에서 20%대로 끌어 내렸고 이명박 정권은 결국 지난 22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언급하며 "모두 내 탓"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그는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조기 타결해야 한다"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민심은 그에 대해 "숨 쉬는 것만 빼곤 모두 거짓말"이라는 불신을 감추지 않고 "이는 국민 정서를 크게 벗어난 비상식적인 오만이고,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알팍한 술책"이라며 네티즌, 시민들은 '이명박 탄핵운동'까지 외치는 실정이다. 불난 민심에 기름만 끼얹은 꼴이다.

새로운 정치세대 등장을 알린 촛불, 그 촛불이 삼킨 청계광장, 청와대에서 불과 수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는 공동의 절망과 분노, 한숨과 눈물이 교차한다. 배부른 부자정권의 '반국민적인 오만과 독선' 행태에 파열구를 내고 새로운 국민희망을 찾으려는 각계각층의 비상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5월 24일 저녁 7시, 17번째 촛불문화제 본대회 돌입에 앞서 사전행사가 시작됐다.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 총력투쟁을 결의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여 명도 일제히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이날부터 '반광우병' 삼보일배 투쟁에 나섰다.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매일 삼보일배를 벌여 이명박 정권의 FTA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시민들을 강압하며 반광우병, 반FTA 삼보일배 투쟁을 막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전국단위사업장 노조대표자를 소집해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송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철야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이명박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미국산쇠고기가 야적된 전국 냉동창고 14곳을 대상으로 봉쇄투쟁 등을 시작으로 반이명박 총력전에 나선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